

구원하는 복음, 치유하는 복음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사야 53:5-7, 요한복음 3:16

정윤돈 목사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데 복음이 여러분의 삶과는 얼마나 상관이 있는가. 교단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목회를 크게 하면서도, 늘 아내와 자녀를 때렸다고 한다. 그렇게 맞았었던 것이 상처가 되어서, 이분이 '나는 절대 교회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복음을 받은 것이다.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 것이다. 복음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1. 확실한 복음을 내 것으로 누려야 한다.

(1) 세계복음화전도협회, 개혁총회,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목사님들도 그리스도를 모른다. 적용도 못 한다. 가정 따로, 삶 따로다. 성도들도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 방법도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정확히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하나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정욕, 인기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 배운주 집사님의 연락을 받고 가수 연습생 한분을 만났다. 아이돌 가수가 되려고 하는데 문이 자꾸 막히니까 점쟁이를 만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점쟁이가 말을 듣고, 고기를 잡아서 석촌호수에 방생을 하고 왔다는 것이다. 목적이 자기의 인기, 자기의 성공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인기가 떨어지고 불안하면 갈등한다. 자살한다. 남진, 송대관 같은 분들은 과거의 아이돌인데, (웃음) 이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봤다. 경쟁자가 없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는데도 공허했다고 한다. 복음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치유받게 한다.

복음 가진 중직자와 램네프트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성경적 전도 시스템이 무엇인지, 인생 문제의 원인과 답이 무엇인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이 우리다. 세계 선교현장에 나가 봐도 마찬가지다. 선교를 정말 제대로, 성경적으로 하는 선교사님들은 전부 우리 교단이다. 대부분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한국의 큰 교회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학위 따려고 하고 영어 배운다. 틈만 나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내 신학교 동기 9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아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 가 보면 정말 대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프리카에 가면 한국의 제일 큰 교회에서 100억 원을 들여서 대학까지 세워 주었는데 다 빼앗겨 버렸다. 교회에서도 철수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알아서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응답받아서 선교한다. 램네프트들이 가

서 통역하면서 선교하고 있다. 참된 선교를 우리만이 확실하게 하고 있다. 알려줘야 한다.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이것을 모르면 굉장히 큰 축복을 가지고도 놓치는 것이다. 응답받아 보라. 체험해 보라. 복음과 구원의 길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2)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다. 복음 안에는 무궁무진한 것이 담겨 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 모든 민족, 237개 나라를 살리게 되기를 바란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 다시 듣고 붙잡으시기 바란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많은 생명이 초청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도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다섯째 주는 찬양예배를 하면서 복음메시지를 묵상하고 있다. 복음메시지를 나누면서 부서별로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램네프트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했는데, 잘 못 해도 괜찮다. 앞에 나와서 찬양했던 그 자체가 램네프트들에게 평생 각인될 것이다. 나도 어릴 때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 자리에 앉아있고 그랬었다. (웃음) 전부 미래 중직자로 세워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부탁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사명이며 천명이다. 그러나 전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 생명운동을 못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 진도에 집중하는 우리 교단 성도들과 램네프트들도 전도를 전혀 못 해 본 사람이 많다.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의 길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듣기만 했지, 나의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그러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복해서 계속 듣고 외우면 된다. 초창기에 류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3천 번 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붙잡고, 가는 곳마다 이 구원의 길 메시지만 하셨다. 복음만 계속 전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시대적인 사명자들이 일어났다. 우리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매일 연습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우리교회에서는 17분 복음소식, 10분 복음소식을 암송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역을 해 왔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고향의 어머니에게 이것을 보낸 것이다. 딸이 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계속 보다가, 어머니가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만 들을 수 없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달라' 해서, 권사님이 시골에 가서 노인들의 어르신들에게 다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가정이 깨어져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연결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로 다락방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복음소식을 계속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란다.

2. 복음으로 자신과 현장을 치유해야 한다.

(1)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로마서 1:20을 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고 있다.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다. 진화론은 많은 약점을 가진 하나의 이론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을 법칙으로, 진리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의 영역이다. 진화론도 창조론도 증명할 수 없다. 믿음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

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다. 이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오지의 어떤 부부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것은 우상이지, 참 신이 아닌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없애 버리고, 진짜 신이 우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느 날 선교사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인데,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했더니, 박수를 치면서 대답했다. “우리가 기다리던 참 신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받을 사람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따라 우주를 다 만드셨다.

(2) 만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지으셨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은 죄인이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스스로 잘난 척 하지 마라. 죄 없는 척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는 누구도 미워할 수 없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3)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언약을 주셨다. 그런데 인간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하게 되었다. 언약을 떠나게 되었다. 타락의 결과 인간에게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가 찾아오게 되었다.

① 근본이 마귀의 자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조건 없이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란다.

② 어떤 분의 간증이다. 상해에 있는 언니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고 우상을 다 버렸다고 하면서 딱 한 가지는 못 버리겠다고 했다. 재물을 주는 우상은 절대 못 버리겠다고 했다. 그것까지 드디어 버리고 나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곱 번, 여덟 번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드디어 들어간 것이다. 대학생 때 친구 중에 김주식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자기 부모님이 불신자인데, 자기 집 방 하나를 점쟁이에게 빌려준 것이다. 이게 기분이 나쁘니까, 이 친구가 찬양을 3개월 동안 틀어놓았다. 점쟁이가, 점괘가 안 나온다 해서 이사가 버렸다.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영산강에 가서 놓고 있는데, 무당이 찾아왔다. 다른 데로 좀 가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곳을 하고 있는데, 신이 안 온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③ 정신문제가 온다. 부부가 왜 싸우는가. 왜 용서하지 못하는가.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왜 불평불만을 가지는가. 왜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가. 그것이 다 정신적인 문제다. 왜 포용하고 수용하지 못하는가. 치유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원받았는데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복음이 내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영혼, 마음, 생각이 다 치유되기를 바란다.

④ 그러면 불치병도, 유전병도 다 나올 수 있다. 하나님 떠나면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다. 가난, 질병, 육신적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로 결론부터 내 보라. 모든 막힌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란다.

⑤ 어느 청년이 말했다. 가위에 눌리는데, 계속 눌리다 보니까 귀신이 보이더라고 한다. 불을 끄니까 귀신이 보여서 불을 켜는데, 그런데도 귀신이 보였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우스운 이야기로 취급했다. 밤새 가위눌리니까 잠을 잘 수 없어서 직장에서 계속 졸게 되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 찾아왔다. 영적인 문제가 조금 들어가는데 아무 것도 되는 게 없게 된다. 우울증에 빠져 버린다. 마약에 빠진다. 자살하고 싶어진다.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자살은 실패하고 반신불수가 되고,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도 많다. 약을 먹어서 위장이 다 타버렸는데 죽지는 못했으니, 뭘 먹을 때마다 죽도록 아프다. 이런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자살하고 싶었던 마약 환자가, 옛날에 마약을 같이 했다가 먼저 치유된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고 나서 자신도 치유되어 버렸다. 계속 복음으로 자기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한다.

⑥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 뿐 아니라 개인, 가정을 다 살려야 되겠다.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이 너무 많다. 부부를 보면 너무 지옥같이 살아간다. 문제가 너무 많다. 적용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복음으로 겨우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다. 나를 살리고 부부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도록, 완전히 치유받아야 한다. 엄마, 아빠가 정말 싫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사이가 안 좋다.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받고, 가정을 살리고, 친인척을 살리고, 정말 현장을 정말 살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영세 전에 선택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만이 영혼과 개인과 부부와 자녀와 가문과 나라와 민족, 세계를 살릴 유일한 길임을 알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 주셔서,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의 증인,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복음을 목상하다가 전도의 문, 지교회의 문,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목상하다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응답을 받고, 경제의 응답도 받으며, 치유의 응답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